

【논 문】

임진왜란과 여진인 ‘來朝’의 종언*

박 정 민**

┃ 차 례 ┃

1. 머리말
2. 임진왜란 직전의 여진인 내조
3. 임진왜란과 조선의 대여진 정책
4. 여진인 내조의 폐지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초기부터 이루어진 여진인 내조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지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은 건국 이전부터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來朝와 授職을 통해 이들을 자신의 외교질서에 편입하였다. 특히 조선은 세종대 6진을 설치하면서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조선의 울타리’, 즉 藩籬·藩屏으로 구축하며 변경의 안정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연산군대부터 여진인의 내조 기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여진인이 조선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들의 내조는 계속되었다.

宣祖代에도 여진인에 관한 기록은 적지만 이들의 내조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선조 16년에 조선의 질서에 반하는 ‘니탕개의 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이들의 내조를 수용하였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양자 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임진왜란의 종식 후, 조선은 藩胡의 상경을 허락할 여유가 없었다. 결국, 조선은 변호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해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박정민, 2014, 『朝鮮時代 女真人 來朝 研究』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주는 방식으로 대어진 정책을 선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성격과 다른 것으로 여진인 내조의 폐지를 뜻한다. 즉 내조를 기반으로 건국 초부터 유지되던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가 종언을 고한 것이다.

주제어 : 여진, 선조, 내조, 누르하치, 부잔타이, 두만강 유역

1. 머리말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상 최대의 전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큰 변화가 초래되어, 조선시대를 전·후기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비단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임진왜란 이후 명·청의 교체, 일본의 정치세력 변화 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조선의 지배층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夷狄觀이 심화되었고, 명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었다.

임진왜란의 파급력은 단지 당사자인 조선, 일본, 명뿐만 아니라 누르하치(Nurhaci)¹⁾의 建州衛²⁾까지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역사학계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누적되어있다.³⁾ 그러나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는 전

-
- 1) 조선은 누르하치를 老魯, 老胡, 老可赤, 老乙加赤 등으로 명은 奴兒哈赤으로 기재하였다. 『광해군일기』 권50, 4년 2월 6일 신미) 최근 누르하치와 슈르하치(舒爾哈齊), 부잔타이(布占泰) 등을 만주어 발음으로 읽고 있어 이에 따르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자명으로 기재하였다.(김주원, 2010, 「여진족 추장 하질이(何叱耳)의 실록상 이표기에 대하여」, 『인문논총』 64 ; 劉小萌 著/이훈·이선애·김선민 역, 2013,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 2) 보통 학계에서는 이 시기 누르하치의 건주위에 대해서 後金, 혹은 편의상 淸이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후금은 1616년에 누르하치가 만주의 여러 部를 통일한 이후 건설한 나라이다. 누르하치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건주위를 통일한 후 명으로부터 1593년에 建州衛都督 龍虎將軍이라는 직함을 받았다. 따라서 당시 누르하치의 세력을 지칭할 때는 후금이라는 용어보다 건주위라고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3) 최근에 임진왜란의 연구사 정리한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노영구, 2010, 「壬辰倭亂의 學說史的 검토」,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경인문화사) 또한, 지난 2012년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7주년이 되던 해로 여러 차례의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으며,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그 외 발표된 연구들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엄청난 연구 성과가 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문중, 2013, 「임진왜란 시기 장성 남문의병의 활동과 성격」, 『한일관계사

쟁의 발생배경, 경과, 영향 등과 의병 등에 집중하였다. 최근 들어 거시적 관점에서 조선과 명, 일본 등의 대내외적 상황을 비교하고, 누르하치의 성장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⁴⁾

누르하치의 성장은 이후 명·청 교체라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⁵⁾ 그러나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시기 아직 누르하치에게 편입되지 않았던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당시 여진의 주축이 누르하치의 건주위였고,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과 큰 교전을 벌이지 않았기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⁶⁾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두만강 유역 여진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조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거나,⁷⁾ 두만강 유역에 거주한 藩胡의 성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⁸⁾ 또한, 선조 16년에 발생한 ‘尼湯介의 난’과 조선의 응징,⁹⁾ 변호의 이탈 방지와 이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선의 대책 등¹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연구」 45, 각주 1번 참고)

- 4)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 ; 정두희 외, 2007,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 5) 여기에 관한 연구 성과는 매우 많으나 대표적인 저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稻葉岩吉, 1933,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 大阪屋號書店 ; 三田村泰助, 1965, 『清朝前史の研究』, 同朋舎 ; 서병국, 1970, 『宣祖時代 女直交涉史研究』, 敎文社 ; 閻崇年, 1983, 『努爾哈赤傳』, 北京出版社 ; 김두현, 1989, 『清朝政勸 成立과 發展』, 『강좌중국사』 4 ; 최호균, 1995, 『조선중기 對女眞관계의 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최소자, 1997, 『명청시대 중한 관계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혜안 ; 한명기, 1999, 앞의 책 ; 袁閻 硯 外, 2004, 『清代前史』 上·下, 瀋陽出版社 ; 정두희 외, 2007, 앞의 책 ; 劉小萌/이훈·이선에·김선민 역, 2013, 앞의 책)
- 6)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1592년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두만강을 건너 여진 지역을 침공하였다가 이들의 반격을 받고 되돌아 온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임진왜란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
- 7) 서병국, 1970, 앞의 책 ; 『朝鮮前期 對女眞關係史』, 1990, 『국사관논총』 14.
- 8) 한성주, 2010, 「조선전기 두만강 유역 ‘女眞 藩籬·藩胡’의 형성과 성격」 『한국사학보』 41.
- 9) 송우혜, 2005,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 72 ; 윤호량, 2012, 「선조 16년 (1583) ‘尼湯介의 난’과 조선의 대응」 『군사』 82.
- 10) 강신엽, 1997, 「조선중기 이일의 관방정책」 『학예지』 5 ; 김구진, 2005, 「조선 시대 6鎭 방어 전략-制勝方略체제의 연구」 『백산학보』 71 ; 이원평, 2009, 「조선중기 鹿屯島 확보와 北兵使 李鎰에 관한 일고찰」 『백산학보』 83 ; 민덕기, 2010,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국방

대여진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조선 초부터 회유책의 하나로 활발하게 구사하였던 來朝와 授職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사실 성종대 이후로 여진인의 내조와 수직 기록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인다.¹¹⁾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산군대 이후 여진인의 내조와 수직 등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¹²⁾ 그런데 여진인의 내조가 대폭으로 감소하여 단절되었다고 평가된 연산군, 중종, 명종대에도 여진인의 내조가 이전과 같이 활발하였다.¹³⁾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여진인의 내조가 감소하였을까? 이에 대해 『春官志』에 “임진년 이후부터 여진인의 上京을 영원히 폐하였다”¹⁴⁾는 내용을 주목할 수 있다. 즉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는 조선이 임진왜란 이전까지 이들의 내조를 수용했다는 말도 된다. 따라서 『春官志』의 기록처럼 조선이 임진왜란 이전에도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했는지,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이들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 이들의 내조를 폐지하였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이전 조선의 대여진 정책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니탕개의 난’으로 대변되는 변호의 반란과 조선의 대응, 이후 임진왜란이라는 대전란 시기에 조선이 변호를 대한 태도와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여진인 내조의 성격이 변질되는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조대 두만강 유역 여진에 대한 연구의 공백을 일부분이라도 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식과 대응에 대한 재검토 - 동북방 여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7.

11) 김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 건국 이후 인조대까지 1,098회의 여진인 내조가 있다고 보았다.(1995,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 22, 350쪽) 그 중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의 여진인 내조는 1,075회로 전체의 약 97.9%를 차지한다. 필자가 조사한 횟수에 의하면 조선 건국 이후 선조대까지 총 1,269회의 여진인 내조가 확인된다.(박정민, 2014a, 『朝鮮時代 女眞人 來朝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그 중 태조대부터 성종대까지의 여진인 내조는 약 1,239회로 전체의 97.6%이다.

12) 이를 토대로 조선과 여진의 관계가 변화하였다는 주장이 고착되어있다.(김구진, 1995, 앞의 책 ; 김순남, 2011, 「16세기 조선과 野人 사이의 모피 교역의 전개」, 『한국사연구』 152)

13) 박정민, 2014b, 「연산군~명종대 여진인 來朝의 재검토」, 『역사학보』 222.

14) 『春官志』 卷3, 野人.

2. 임진왜란 직전의 여진인 내조

조선은 건국 이전부터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來朝와 授職을 통해 이들을 자신의 외교질서에 편입하였다. 특히 조선은 세종대 6진을 설치하면서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조선의 울타리’, 즉 藩籬·藩屏으로 구축하며 조선 변경의 안정화를 꾀하였다.¹⁵⁾ 그런데 연산군대부터 여진인의 내조 기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여진인이 조선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들의 내조는 계속되었다.¹⁶⁾ 선조대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기존의 여진 관계와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임진왜란 직전의 대여진 관계를 통해 여진인 내조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조대 사군을 폐지한 뒤로 조선은 평안도 절도사 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순찰하여 여진인의 거주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기대와 달리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진인의 주거가 계속되자 중종은 이들을 구축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진인이 이 지역에 거주하였기에 선조 초년에도 조선은 중종대와 마찬가지로 廢四郡 지역의 여진인 驅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¹⁷⁾ 따라서 선조 초반기에는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보다 이 지역의 여진인과 관계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선조 원년 5월에 평안도 절도사 김수문이 여진인을 구축하려다가 西海坪에서 습격을 받았다.¹⁸⁾ 선조 5년 7월에도 평안도 절도사 이대신이 서해평에서 여진인의 농작물을 베러 군사를 동원했다가 무위를 잃는 일이 있었다.¹⁹⁾

15) 정다함, 2008,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屏 認識의 형성과 敬差官의 파견」, 『동방학지』 141. 정다함은 “교린”이라는 기존 관점에 대한 비판과 이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석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필자 역시 이 관점에 동의한다.

16) 박정민, 2014a, 앞의 논문.

17) 중종대 廢四郡 지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驅逐하는 내용은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河內良弘, 1977, 「中宗·明宗時代の朝鮮と女眞」, 『朝鮮學報』 82 ; 黃枝連, 1995, 『天朝禮治體系研究』 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2~16쪽)

18) 『선조실록』 권2, 1년 5월 20일 기사 ; 23일 임인 ; 『선조수정실록』 권2, 1년 5월 1일 경술.

19) 『선조수정실록』 권6, 5년 8월 1일 갑인.

또한, 선조 7년 7월에 서해평에서 벌어진 소요사태를 평안도 절도사 소흡이 보고한 사건이 있었다.²⁰⁾ 이 때문에 이대신과 소흡 등은 모두 관직을 추탈당하고 유배되었다가, 선조 8년 3월에서야 겨우 직첩을 환급받았다.²¹⁾

이러한 상황에서 선조대 여진인의 내조 기록은 전과 마찬가지로 잘 보이지 않고, 여진인의 내조 자체가 있었는지도 규명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여전히 여진인의 내조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선조 6년 1월에 북병사 장필무가 올린 장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헌부가 아뢰었다. “北兵使 장필무가 상경한 胡人이 黑角을 무역해 갔다고 狀啓함에 따라, 지난 신미년(1571) 이후 (북평)관의 관원을 파직하고 아랫사람들을 詔獄이 推考하였습니다. 장계는 지난해 11월에 啓下하였는데 (예조에서) 곧 回啓하지 않았으니, 예조의 당상과 色郎廳을 파직시키소서”²²⁾

원칙적으로 여진인은 북평관에서 사사로이 무역할 수 없었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1)과 같이 선조 초년에 상경한 여진인이 암암리에 흑각을 매매하였고, 이후 이 사실을 인정한 북병사가 장계를 올려 실상을 알려왔다. 하지만 예조에서 회계하지 않아서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사헌부의 지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선조는 4년(1571) 이후 북평관에서 근무한 관원을 파직하고, 그 아랫사람을 의금부에서 추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최소한 선조 4년 이후에도 여진인이 계속 상경하여 북평관에 머물렀음을 반증한다.

조선은 명종 7년 10월에 골간을적함이 경흥의 서수라를 공격하자 응징했던 ‘서수라 사건’ 이후, 藩胡(藩籬)²⁴⁾의 내조 등을 통해 이들을 다시 조선의

20) 『선조실록』 권8, 7년 8월 7일 무진.

21) 『선조실록』 권9, 8년 3월 3일 임인.

22) 『선조실록』 권7, 6년 1월 6일 정해.

23) 여진인은 중종대에도 북평관에서 불법으로 무역하여 폐단을 일으켰다. 『중종실록』 권52, 20년 1월 9일 무진 ; 『중종실록』 권90, 34년 5월 28일 을미)

영향력 아래에 두었다. 그런데 선조 16년(1583)에 그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尼湯介의 난’이 그것으로, 조선의 邊將이 번호를 확대하는 등 폭정을 가하자 선조 16년 1월에 慶原府 阿山堡의 주장인 迂乙知(于乙其內)가 주도하여 난을 일으켰다.²⁵⁾

니탕개의 난은 조선에 작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선조는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藩胡로 삼아 육진의 울타리로 만들었고, 조선에 納款하여 백 년에 걸쳐 編戶가 된 자들을 그대로 어루만져 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²⁶⁾ 더군다나 명종대의 서수라 사건 이후 번호의 침입도 거의 없었기에 조선의 충격은 배가되었다. 그러므로 대신 가운데 어떤 이는 번호의 침입 소식에 “번호가 결코 배반할 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하였다.²⁷⁾ 하지만 번호의 배반은 사실이었고, 조선은 곧바로 이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²⁸⁾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藩胡 가운데 조선에 상경한 자도 있었다. 니탕개의 난이 한창이던 선조 16년 2월경에 선조는 경원부에서 상경한 번호가 아직 本土에 돌아가기 전이므로, 중간에서 잡아 함흥부에 가두고 그들의 부모에게 반란에 가담한 오랑캐들을 잡아 贖을 바치라고 명하였다.²⁹⁾ 즉 조선은

24) 조선 전기에는 여진인을 종족별, 지역별로 지칭하였으나 명종대부터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藩胡’, ‘藩籬’로 부르기 시작하다가 선조대에 이르러 이들의 명칭이 ‘藩胡’, ‘藩籬’로 고착화 되었다.(한성주, 2010, 앞의 논문, 180~181쪽) 여기에서는 앞으로 두만강 유역 여진인을 ‘번호’ 혹은 ‘번리’로 표현하고, 전 시대적인 용어나 두만강 유역 번호 외에 다른 여진을 통칭할 때는 여진인이라고 쓰겠다.

25) 『선조수정실록』 권17, 16년 2월 1일 갑신. 처음에는 우을지가 주동이 되어 난을 일으켰으나, 이후 회령과 중성의 강력한 번호 주장인 栗浦里와 尼湯介가 참전하면서 이들의 세력은 강화되었다. 특히 니탕개의 세력이 가장 강하고, 그가 심하게 반발하였기 때문에 이 반란은 ‘니탕개의 난’으로 명명되었다. 니탕개의 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송우혜, 2005, 앞의 논문 ; 윤호량, 2012, 앞의 논문)

26) 『선조실록』 권17, 16년 2월 10일 계사. 중종대에도 성저야인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매우 많으므로 변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중종실록』 권97, 37년 1월 26일 신축)

27) 『선조수정실록』 권17, 16년 2월 1일 갑신.

28) 『선조실록』 권17, 16년 2월 7일 경인 ; 9일 임진 ; 『선조수정실록』 권17, 16년 2월 1일 갑신.

29) 『선조실록』 권17, 16년 2월 10일 계사. 이처럼 니탕개의 난이 발발하기 전에도 해당 지역의 번호가 조선에 내조한 점을 본다면 우을지 등은 우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그동

내조자의 안위를 담보로 반란에 가담한 자를 잡아오도록 한 것이다. 변호의 내조 경향을 봤을 때, 이들은 正朝에 맞추어 상경했을 것이다. 이는 이 시기에 변호가 계속 내조했음을 시사한다.

니탕개의 난 발발 후 조선군은 곧 전열을 정비하였고, 신립·신상철 등의 활약으로 점차 전세를 역전시켰다.³⁰⁾ 동년 5월에 栗甫里와 尼湯介가 중심이 되어 鍾城·童關鎭·防垣堡 등을 재차 공격하였지만, 조선군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들의 침입을 잘 막아냈다.³¹⁾ 이때 니탕개와 원수지간인 변호 孝汀은 니탕개의 廬舍를 모두 불태웠고, 니탕개는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³²⁾ 이후 니탕개는 동년 7월에도 방원보를 공격하였다가 실패하였고, 더 이상 조선을 공격하지 못하였다.³³⁾

니탕개의 난 이후 조선은 북방의 방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변호를 회유하였다. 전란 중에 “선조는 藩屏 가운데 배은망덕한 자들에 대해 토벌하여 위엄을 보여야 하지만, 온순한 자는 변병으로 삼고 은위를 보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³⁴⁾ 당시 병조판서 이이도 니탕개의 난과 관련하여 시무 6조를 아뢰었는데, 그중 제4조가 변병을 굳건히 하자는 내용이었다.³⁵⁾

변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을 공격하였음에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일부는 후회하면서 다시 조선에 納款하였다.³⁶⁾ 실제 이들의 내조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선조가 귀순하는 변호에게 은위를 보이겠다는 뜻을

안 쌓여온 모순들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30) 『선조실록』 권17, 16년 2월 13일 병신 ; 28일 신해 ; 30일 계축 ; 『선조수정실록』 권17, 16년 2월 1일 갑신.
- 31) 『선조실록』 권17, 16년 5월 6일 정해 ; 13일 갑오 ; 17일 무술 ; 26일 정미 ; 『선조수정실록』 권17, 16년 5월 1일 임오.
- 32) 『선조실록』 권17, 16년 5월 17일 무술.
- 33) 『선조실록』 권17, 16년 8월 1일 경술 ; 2일 신해. 이후 그의 아들 厚時里 등은 누르하치에게 투항하였다.(『선조실록』 권134, 34년 2월 20일 기축)
- 34) 『선조실록』 권17, 16년 2월 10일 계사 ; 『선조수정실록』 권17, 16년 2월 1일 갑신.
- 35) 이때 이이는 십만양병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북방의 여진을 방비하기 위해서였다.(민덕기, 2010, 앞의 논문)
- 36) 『선조수정실록』 권17, 16년 5월 1일 임오. 그러나 울보리와 니탕개는 深處로 도망가서 다시 변방을 침입했다.

보인 만큼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니탕개의 난이 한창일 때, 조선인 가운데 니탕개와 함께 조선을 공격한 자도 있었다. 바로 회령 監考 한하두로 그는 니탕개와 함께 행동하였다.³⁷⁾ 이후 선조 20년(1587)에 변호가 한하두를 쇄환하자, 비변사는 쇄환한 변호를 別運으로 상경시키자고 입계하였다.³⁸⁾ 변호의 본국인 쇄환은 내조의 중요한 조건으로 선조도 쇄환한 변호를 별운, 즉 별도의 차례로 내조를 허락하였다.³⁹⁾ 이러한 점은 니탕개의 난 이후에도 변호의 내조가 定例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니탕개의 난 이후 조선은 북방의 방비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조선은 그 일환으로 순찰사 정언신의 건의에 따라 慶興의 鹿屯島에 屯田을 실시하였다.⁴⁰⁾ 그러나 선조 20년 9월에 骨看兀狄哈이 녹둔도를 함락시켜 둔전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⁴¹⁾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내부에서도 선정관 김경눌이 북정을 청하는 등 보복하자는 의견이 팽배하였다.⁴²⁾ 결국, 이듬해 1월에 북병사 이일이 경흥의 對岸인 時錢부락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 이일은 적의 가옥 200여 채를 불태우고, 383급을 참획하였다.⁴³⁾

37) 『선조실록』 권21, 20년 11월 13일 무술.

38) 『선조실록』 권21, 20년 11월 21일 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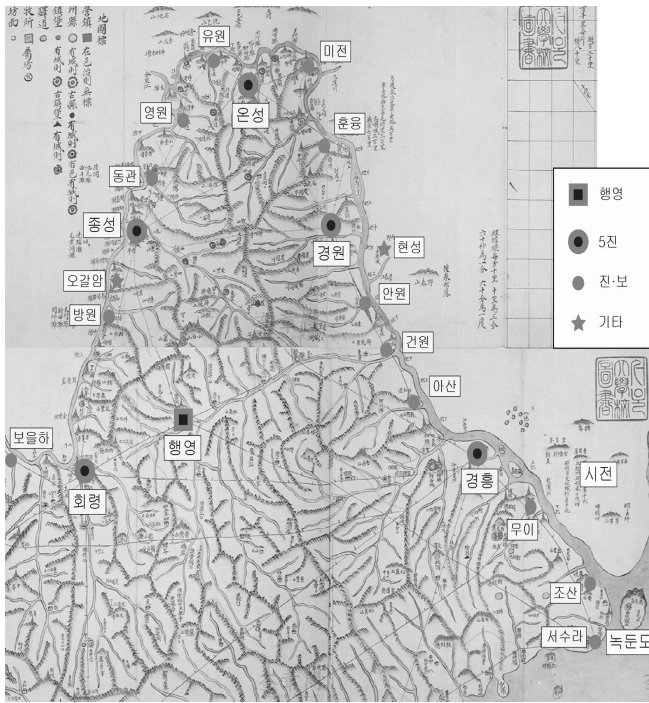
39) 『攷事撮要』와 『春官志』에 의하면 여진인의 내조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유공자는 별도로 상경할 수 있었다.(『攷事撮要』 上, 接待野人事例 ; 『春官志』 卷3, 野人)

40) 『선조실록』 권17, 16년 12월 1일 기유.

41) 『선조수정실록』 권21, 20년 9월 1일 정해 ; 『선조실록』 권21, 20년 10월 4일 기미 ; 10일 을축 ; 12월 26일 경진 ; 『制勝方略』 卷1, 列陳防禦 造山堡. 당시 적에게 살해된 자가 10여 명이고, 사로잡힌 자는 160여 명이었다. 이때 담당자였던 경흥부사 이경록과 조산보 만호 이순신 등은 패전의 책임을 졌다.

42) 『선조실록』 권21, 20년 11월 7일 임진.

43) 『선조실록』 권22, 21년 1월 27일 신해 ; 『선조수정실록』 권22, 20년 1월 1일 을유. 이일의 시전평 전투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강신엽, 1997, 앞의 논문 ; 김구진, 2005, 앞의 논문 ; 이원명, 2009, 앞의 논문)



[그림 1] 『동여도』를 통해서 본 선조대 6진 지역 주요 진·보의 위치⁴⁴⁾

그런데 조선군이 時錢을 정토하는 기간에도 이곳에 거주하는 번호가 상경하고 있었다. 선조 21년 1월 29일에 비변사에서 시전의 번호 중에 5명이 지금 上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비변사는 내조자의 가족이 다 焚蕩되었으니, 그들이 돌아가면 반드시 복수할 거라며 이들을 絶島에 유배하자고 청하였다.⁴⁵⁾ 즉 조선군이 시전을 공격하기 전에 경원부사가 이곳 번호의 상경을 허락한 것이다.⁴⁶⁾ 이후 조선은 후환에 대비하기 위해 이들을 신속하게

44) 이 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재편집하였다.

45) 『선조실록』 권22, 21년 1월 29일 계축.

46) 여진인이 상경하는 인원 및 횡수는 이미 국가에서 정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5진의 변장들이었다. 이 때문에 변장들은 초피 등의 뇌물을 바치는 차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폐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박정민, 2014b, 앞의 논문, 57쪽)

제주도로 유배 보냈다.⁴⁷⁾

당시 시전의 번호는 조선의 정토 계획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내조하였다. 그리고 내조 인원도 5명으로 이는 성종, 중종대의 여진인 내조 규정과 일치한다.⁴⁸⁾ 이 역시 니탕개의 난 이후에도 번호가 조선에 내조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시전부락 정토 이후 조선이 규정대로 번호의 내조를 수용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의 사례들을 통해 조선은 시전부락 정토 이후에도 여전히 번호의 내조를 수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3. 임진왜란과 조선의 대여진 정책

조선은 번호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내조를 수용하며 북방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과 번호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발생하는데, 바로 임진왜란이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임진왜란은 조선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과 여진 관계 역시 기존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⁴⁹⁾

선조 25년(1592)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개전 초기 조선은 패퇴를 거듭하였다. 조선은 개전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당하였다. 이후 평양까지 함락되고, 6월 22일에 선조가 의주에 도착할 정도로 일본군

47) 조선은 여진인 가운데 범죄자 등은 산곡이나 섬에 유배시켰는데, 이 역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 것이다.

48) 박정민, 2013b, 「조선 성종대의 여진인 “來朝” 연구」 『만주연구』 15. 한편, 『攷事撮要』와 『春官志』에 의하면 이들은 경흥에서 보낸 번호였을 것이다.

49) 이 기간에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대하여 후금을 세우고, 청을 건국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때문에 그동안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각주 5번 참조) 반면, 두만강 유역의 번호 동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서병국의 연구를 제외하고 보이지 않는다. 본 장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에게 크게 밀리고 있었다. 얼마 후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이순신 등의 승전보도 전해졌다. 선조는 명에 원병을 요청하는 한편 광해군에게 分朝를 이끌게 하였다.

선조는 臨海君과 順和君을 강원도와 함경도에 보내 勤王兵을 모집하게 하였다. 하지만 두 왕자가 백성들의 재물을 함부로 뺏는 등 흉포한 행동을 하다 함경도 會寧에서 鞠景仁 등에 의해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 넘겨졌다. 이때 일본군은 함경도뿐만 아니라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 여진 지역까지 진군했다가 여진인의 습격을 받고, 다시 강을 건너 鍾城, 穩城, 慶原, 慶興을 거쳐 되돌아왔다.⁵⁰⁾

이처럼 조선군이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도 비변사는 변호의 상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선조 25년 12월에 비변사는 다음과 같이 이번에 상경하려는 변호에게 관목을 나누어 주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 비변사가 아뢰었다. “(그동안) 北胡에게 해마다 무리를 나누어 上京하게 하여 국가에서 優恤하는 뜻을 보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나랏일이 아직 이리하여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못할 형세인데 저들이 어찌 국내의 일이 이렇게 된 줄을 알겠습니까. …(중략)… 지금 나라의 저축이 탕갈되었으니 官木 150疋을 북평사 군관이 가는 길에 부쳐서, 방어서 김우고·구해주에게 북도로 옮기도록 하고, 이를 평사가 이번에 상경하려는 호인들에게 나눠주면서 ‘국가에 일이 많아 너희의 연례행사를 허락할 수가 없어 단지 이것을 나누어 준다’고 유시하게 하여 우호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⁵¹⁾

(2)에서 주목할 점은 조선이 매년 횃수를 나누어 변호의 상경을 허락해 왔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변호의 내조가 전과 같이 해마다 정해진 運數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비변사가 관목을 나누어 주면서 연례행사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한 말도 이리

50)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7월 1일 무오 ; 『北關志』 穩城府, 雜記.

51) 『선조실록』 권33, 25년 12월 12일 무술.

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조선이 변호의 내조 수용을 하지 못한 점을 염려하면서 약간의 물품이라도 나누어 주려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조선은 여진인의 내조를 이용하여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에 편입하였다.⁵²⁾ 하지만 조선은 전란으로 이 질서가 붕괴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困窮한 상황에서도 변호에게 하사품을 나눠주고자 한 것이다.⁵³⁾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변호도 조선을 공격하고, 조선의 외교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변호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환으로 조선은 변호가 이 기간 조선에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공을 세우면 상을 주는 등 후대하였다. 예를 들어, 선조 26년 4월에 甫乙下鎭의 추장 邑沙가 조선군에 전마와 투구, 갑옷을 제공하였다. 이에 비변사는 정성이 가상하다며 6품 이상의 군직을 제수하고 관교를 주차고 하였지만, 선조는 오히려 관직이 너무 낮다며 올려주라고 명하였다.⁵⁴⁾ 또한, 온성 柔遠鎭의 변호추장이 조선의 피난민을 잘 보호하자, 조선에서 논상하였다.⁵⁵⁾

그렇다면 조선은 변호의 우호적인 태도에 상응하여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다음 사료는 조선이 변호를 후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잘 보여 준다.

(3) 예조가 아뢰기를, “왜적이 북도에 가득 차 있을 때, 변호 등은 犬羊

5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정민, 2014a, 앞의 논문, 33~40쪽 참조.

53) 정태섭은 ‘북관대첩’에 변호가 참전하였고, 이에 대한 포상의 개념으로 이들에게 관목을 주었다고 보았다. 물론 변호 가운데 일부가 북관대첩에 참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처럼 변호의 상당수가 참전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그는 조선이 참전한 변호에게 파격적으로 포상하는 것을 부당스러워했을 것이기에 북관대첩을 칭찬할 수 없다고 보았다.(2007, 「‘北關大捷’ 관련 사료의 재검토로 본 ‘鄭文學 義兵軍’의 人的構成」 『명청사연구』 27) 그렇지만 본문의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참전하지 않은 변호에게도 조선에서 후대한 사실을 본다면 이 주장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겠다.

54) 『선조실록』 권37, 26년 4월 9일 계사.

55) 『선조실록』 권40, 26년 7월 23일 을해.

같은 마음으로 원한을 품어온 지 오래였다가 기회를 타서 발동하여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고 관사를 분탕하였으니, 이것은 괴이하지 않습니다. 적이 후퇴한 후이니 마땅히 문죄해야지만, 우리는 지금 병력이 부족하니 차라리 참고 그들을 무마해야 합니다. 더구나 저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이끌고 와서 항복하고 있으니, 우선은 위무하는 은택을 베풀어 반복무상한 그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의 임시 조치입니다. 경원의 주장 吾羅赤 등에게도 힘을 다해 타일러 그들을 항복시키고 후하게 상을 내려 여러 추장을 감동케 하는 것이 藩服을 진압하는 계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前職이 무엇이었는지 고찰할 방도가 없어 본조에서 독단하기가 어려우니 賞職의 高下를 대신에게 상의하여 처리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⁵⁶⁾

함경도가 가토에게 점령당했을 때, 변호 가운데 일부는 조선을 분탕하였다. 이후 정문부를 중심으로 한 의병이 활약하여 그해 9월과 10월에 각각 鏡城과 明川을 수복하였고, 일본군은 후퇴하였다.⁵⁷⁾ 조선은 함경도의 여러 현안과 함께 조선을 배반했던 변호의 처리문제에 고심하였다. 그러므로 선조 26년(1593) 6월에 예조는 (3)과 같이 변호를 안정시키자고 주장한 것이다. 즉 조선은 변호의 안정 방안으로 경원의 주장 吾羅赤 등을 항복시켜 후하게 상을 내리는 전통적인 회유책을 채택하였다.

변호가 항복하여 내조할 때, 것처럼 예조에서 그 관품에 따라 관직의 승진과 하사품의 다소를 책정하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왜란이라는 비상사태에서 예조는 그들의 前職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예조는 변호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그 기준을 선조와 대신들이 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역시 왜란 전에 조선에서 그동안의 관품에 따라 賞職을 내려 주는 것이 보편적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해 가을 윤두수도 전쟁 때문에 변호가 오랫동안 상경하지 못하니 면포를 보내어 그들의 마음을 위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⁸⁾ 이 역시 조선이

56) 『선조실록』 권39, 26년 6월 22일 을사 ; 『北關志』 鐘城府, 雜記.

57) 정문부의 활약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이장희, 1977, 「鄭文學의 義兵活動」, 『사충』 21·22 ; 정태섭, 2007, 앞의 논문)

58) 더불어 그는 온성의 오랑캐들도 계미년(선조 16) 전후로 배반하지 않았으니 또한 藍布를

전란 전에 변호의 내조를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선은 전란 중에도 변호를 위무하기 위해 관심을 둔 사실도 알 수 있다.

조선이 변호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는 자들도 있었다. 선조 27년(1594) 7월에 骨看兀狄哈이 西水羅를 침입하였고,⁵⁹⁾ 이에 비변사는 降倭를 북방에 보내 이들을 제압하고자 하였다.⁶⁰⁾ 특히 온성 변호의 반란이 대표적으로,⁶¹⁾ 동년 9월에 함경도 관찰사 이회득은 변호 伊羅大 등이 온성을 공격했다고 보고하였다.⁶²⁾ 실제로 이들이 동관 등지를 약탈하자 각 지역의 추장들도 준동하였다.⁶³⁾

함경북도병사 정현룡은 易水 등을 포획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들의 힘이 강하고 그 거주지가 험하므로 일단 기회를 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조선군이 경원의 巨酋 多好里⁶⁴⁾ 등의 부락을 공격한 뒤 사기가 진작되었다. 이를 기회로 정현룡은 군사 1,325명과 항왜 25명을 거느리고 역수의 부락을 포위하였다. 역수의 성은 매우 험준하고, 적이 격렬하게 반항하였지만 정현룡은 이들을 섬멸하였다. 정현룡은 돌아오는 길에 북변을 침입한 적이 있는 投丁乃도 정시룡을 보내 토벌하였다. 조선군은 이때의 공격으로 적 479여 급을 베었고, 史官도 국가의 위엄을 약간 세웠다고 평하였다.⁶⁵⁾

나누어 주어 그들의 마음을 굳게 묶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선조실록』 권43, 26년 10월 30일 경술)

59) 『선조실록』 권53, 27년 7월 19일 을미.

60) 『선조실록』 권54, 27년 8월 18일 계해. 당시 항왜의 활약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한문중, 2013, 「임진란 시기 항왜의 투항 배경과 역할」 『인문과학연구』 36)

61) 『선조실록』 권55, 27년 9월 16일 신묘. 당시 조선은 육진의 변호가 일시에 배반할 마음을 가진 것은 국가의 위령이 미치지 못함도 있으나 변장과 수령들의 탐학이 원인이었다고 보았다.(『선조실록』 권39, 26년 6월 22일 을사)

62) 이에 대한 내용은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정현룡의 보고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선조실록』 권55, 27년 9월 28일 계묘)

63) 『선조실록』 권56, 27년 10월 11일 을묘.

64) 『制勝方略』에 의하면 多好里는 尼麻車兀狄哈으로 경원의 변호였다. 그는 경원부에서 동쪽으로 15리쯤 떨어진 老耳島 次下端部落에서 25戶를 거느리고 있었다.(『制勝方略』 卷1, 慶原鎮, 藩胡部落)

65) 『선조실록』 권56, 27년 10월 11일 을묘. 『선조수정실록』에는 이 사건이 동년 3월 1일에 기재되어 있다.(『선조수정실록』, 권28, 27년 3월 1일 기묘) 그러나 다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정도는 선조 27년 9월말이나 10월 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현룡이 변호의 반란을 진압한 후, 비변사는 일단 그 지역을 안정시키자고 건의하였다.⁶⁶⁾ 이듬해 1월에 정현룡은 비변사의 명에 따라 종성, 경원, 경흥 등처의 변호에게 연회를 베풀어주었다. 하지만 변호 중 연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많고,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자 정현룡은 다시 토벌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군사적 마찰을 우려한 비변사의 반대로 정도는 무산되었다.⁶⁷⁾

정현룡이 비변사의 명에 따라 위무에 힘썼는지 기록에 남지 않아 알 수 없지만, 한동안 변호의 침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⁶⁸⁾ 사실 『선조실록』에 조선군이 온성 변호를 공격한 이후 한동안 두만강 유역 변호에 대한 기록 자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신 조선은 누르하치에게 집중했기에 이때 『선조실록』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보인다.⁶⁹⁾ 한편, 두만강 유역의 변호 가운데 老土 같은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 변호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노토는 주로 茂山에 거주하며 조선으로부터 정2품 正憲大夫의 관직을 받기도 한 유력 추장이었다.⁷⁰⁾

노토가 조선과 다른 변호를 공격한 데는 누르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조 24년(1591) 정월에 누르하치가 군사를 보내 長白山(백두산)의 鴨綠江路(部)를 차지하였다.⁷¹⁾ 결국, 누르하치는 선조 31년(1599) 1월에 노토의 부락을 정토하여 노토를 자신의 세력 아래에 두었다.⁷²⁾ 압록강부는 폐사군과 그 주변 지역으로 원래 溫河衛의 근거지이다.⁷³⁾ 누르하치는 노토를 공략한 뒤,

66) 『선조실록』 권56, 27년 10월 11일 을묘.

67) 『선조실록』 권59, 28년 1월 15일 무자.

68) 이 기간 변호의 침입 사례는 선조 29년 8월에 경원의 夫仇里와 온성의 明自仇未至에 적이 들어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한 것이다.(『선조실록』 권78, 29년 8월 5일 경자)

69) 이처럼 조선은 선조 28년부터 29년까지 누르하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70) 『선조실록』 권152, 35년 7월 6일 을축. 『北路紀略』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此在今茂山境長白山後等地者 或稱白山部落 又有予乙亏部落而諸書多統言老土 共其部落之最大者也”(卷3, 故實 邊胡野人 老土部落) 이를 보면 그는 이 지역의 강력한 추장으로, 조선에도 익히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다.

71) 『清太祖實錄』 卷2, 辛卯, 春正月 戊戌朔.

72) 『清太祖實錄』 卷2, 戊戌, 春正月 丁亥朔 ; 『滿州實錄』 卷2, 戊戌.

73) 온하위가 누르하치 시기에 압록강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三田村泰助와 河內良弘 모두

茂山에 거주하는 노토를 발판으로 두만강 유역의 변호에게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후 노토의 변호 공략은 무산에서 가까운 회령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누르하치가 노토를 복속한 직후인 선조 31년 3월에 회령 등처의 변호가 소속을 알 수 없는 여진인에게 공격당하였다.⁷⁴⁾ 이때의 침입 주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조선은 앞으로 변호가 누르하치에게 항할 것이라며 우려하였다.⁷⁵⁾ 실제로 조선은 동년 12월에 변호 別山の 보고로 회령의 변호가 누르하치에게 투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⁷⁶⁾

이러한 점을 본다면 누르하치가 노토의 도움 없이 회령 등처 변호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누르하치는 무산의 노토 등을 이용하여 조선의 변호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기간 누르하치는 백두산 주변과 그 남동쪽인 무산 지역까지 세력을 미쳤을 것이다.⁷⁷⁾

이듬해인 선조 32년에도 회령의 변호인 明看老 등이 누르하치에게 귀부한 뒤, 회령 등처의 변호를 공격하였다. 북병사 이일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土兵 강역필 등 30여 명을 노토에게 보냈으나 살해당하였다.⁷⁸⁾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자 조선은 노토의 침략 및 변호 해체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조선은 본보기로 한, 두 부락을 탕멸하는 방안, 유능한 변

공감하고 있다.(三田村泰助, 1961, 「朝鮮側史料より見た初の疆域」 『朝鮮學報』 21・22, 511~513쪽 ; 河內良弘, 1966, 「溫河衛考」 『朝鮮學報』 37・38, 460~466쪽) 하지만 그 위치에 대해서 三田村泰助는 지금의 만포 對岸으로부터 압록강 상류에 있다고 보았고, 河內良弘은 폐사군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했다고 보았다.

74) 『선조실록』 권98, 31년 3월 12일 정유.
 75) 서병국은 이때의 침입자를 노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토가 누르하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조선의 管攝을 이탈하여 도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다.(1970, 앞의 책, 61쪽)
 76) 『선조실록』 권107, 31년 12월 16일 정묘.
 77) 그런데 이해 8월 1일 『선조실록』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노토는 누르하치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즉 노토가 그의 휘하인 介落之를 회령부사에게 보내 누르하치가 자신의 휘하에 올 것을 종용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진고하게 한 것이다(『선조실록』 권103, 31년 8월 1일 갑오) 북병사 이일도 그 마음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그의 진고는 조선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78) 『선조실록』 권110, 32년 3월 28일 정미 ; 권111, 32년 4월 21일 경오 ; 권113, 32년 5월 7일 갑인 ; 『北關志』 會寧府, 雜記.

장의 배치 등을 논의하며 북도 방어에 부심하였다.⁷⁹⁾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토 등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이 취한 대책은 회유책이었다. 앞서 선조 28년에 북병사가 변호에게 연회를 베푸는 것처럼 조선은 이전부터 육진의 변호에게 관찰사와 북병사 등이 순회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⁸⁰⁾ 따라서 선조 32년 6월에 함경도 관찰사와 북병사는 육진에서 변호에게 연회를 베풀어주었다.

이때 함경도 관찰사 윤승훈은 연회에 참석한 변호가 무려 7천여 명이나 된다고 니탕개의 난 때와 달리 지금 변호가 많이 온 것을 보아 이들이 노토와 통모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⁸¹⁾ 물론 史臣의 비평과 같이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변호의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조선이 변호의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온성에서 연회를 베풀던 날 변호 추장 등이 와서 “몇 년 동안 한양에 가서 조회하지 못했으니, 올해에는 이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여기에 윤승훈은 아직 명군이 나라 안에 있으니, 회군하고 난 뒤에 허락하겠다고 기다리라고 대답하였다.⁸²⁾ 이는 당시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변호가 여전히 조선에 내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선은 전란 가운데에서도 변호의 이탈과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변호 중 일부가 조선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조선은 역수 부락을 공격하여 무위를 보이는 한편, 변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은 여전히 변호의 상경을 허락하지 못하였고, 임진왜란 기간과 최소한 선조 32년(1599)까지는 변호의 내조가 없었다. 이 기간 조선의 변호였던 노토는 누르하치와 손을 잡고 조선과 변호를 공격하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조선은 변호 안정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79) 『선조실록』 권111, 32년 4월 19일 무진 ; 21일 경오 ; 권113, 32년 5월 7일 갑인.

80) 함경도 관찰사나 북병사가 변호에게 연회를 베푸는 것은 이미 중종대부터 시행되었다.(『중실록』 권91, 34년 8월 29일 계사 ; 권92, 34년 11월 8일 신축 ; 10일 계묘)

81) 『선조실록』 권114, 32년 6월 29일 병오.

82) 위와 같음.

4. 여진인 내조의 폐지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던 임진왜란이 종식된 후, 조선은 국내·외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두만강 유역의 변호에 대해 안정을 꾀하였다. 조선은 이를 위해 변호의 상경을 허가하여 회유하는 한편, 조선을 침입한 세력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조선은 변호의 상경 요청을 수용하여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이 변호의 상경을 허용하거나, 이들이 상경했던 직접적인 기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료가 있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다.

선조 33년(1600) 3월 21일에 승지 최철견이 “함경관찰사가 보낸 向化胡人들을 異色人이라 하여 수문장이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문밖에서 유숙하더라도 내일은 들어오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선조가 해당 관사에 조치하게 하였다.⁸³⁾ 다음날 예조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4) “이번에 向化胡인들이 어제 東城 밖에 도착했는데 저지하고 들여보내지 않았으니 먼 곳 사람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였습니다. 즉시 선전관에게 명하여 標信을 가지고 가서 들어오게 허락할 것은 물론, 우선 司譯院의 옛터에 머무르게 한 다음 該司에게 계미년(선조 16)의 舊例에 따라 한결같이 후하게 공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⁸⁴⁾

이를 종합하면 함경도관찰사가 변호를 상경시켰으나, 수문장이 이색인이

83) 『선조실록』 권123, 33년 3월 21일 갑자. 여기에서 수문장 등은 향화호인을 이색인이라 표현한 점이 이채롭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면 “이색인”이라는 표현은 선조대 2회 밖에 나타나지 않고, 그 시점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인 선조 31년과 33년이다. 아마 여기에서 “이색인”이라는 표현은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인 조선인이 他者에 대한 경계심에서 나온 표현이 아닌 가 생각한다.

84) 『선조실록』 권123, 33년 3월 22일 을축.

라며 성안에 들여보내지 않았다. 이에 승지가 선조에게 보고하였고, 선조는 즉각 해당 관사에 조치하도록 명령하였다. 하지만 번호의 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다음날 예조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 내조 여진인이 동성 밖에 도착한 것은 함경도에서 한양으로 오는 길이 동대문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었다.⁸⁵⁾

예조는 우선 이들을 司譯院의 옛터에 머물게 한 뒤 계미년, 즉 선조 16년의 舊例에 따라 이들을 접대하게 하였다. 예조가 이들을 북평관이 아닌 사역원의 옛터에 머물게 한 이유는 전란으로 도성이 불탄 상황에서 북평관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역원 터에 머물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문장이 번호의 입성을 허락하지 않는 등 내조자의 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한동안 내조자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은 내조자가 아니라 전부터 조선의 영토 안에 거주하는 향화 여진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예조에서 계미년의 구례를 따라 이들을 접대하는 것은 내조자의 접대가 원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를 참조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조 33년 3월에 한양에 왔던 이들은 내조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년 후인 선조 35년(1602)에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한양에 와서 분란을 일으킨 향화인 吉尙의 사례 역시 이때와 성격이 다르다. 길상은 선조 35년 12월 18일에 사위 阿從介가 사는 경기도 양주 누원으로 이주하고자 하였으나, 비변사는 안변과 영흥 사이에 이주하라는 關文을 함경도 관찰사에게 내렸다. 이에 길상은 반발하여 무단으로 상경하였다.

85) 조선시대 여진인의 상경로는 경성-길주-성진-단천-이원-북청-홍원-정평-영흥-고원-문천-원산-회양-김화-포천-의정부이다.(이인영, 1954,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35쪽) 따라서 원래 여진인의 숙소인 북평관은 동대문 밖에 있었다. 북평관의 위치는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가 70-3이다.(이현희, 1970, 『朝鮮王朝時代の 北平館 野人』 『백산학보』 9, 119~125쪽)

길상은 상경하자마자 사역원을 찾았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담당 관서인 전객사와 예조, 그 외에 비변사, 호조 등이 처리문제에 관여하였다. 결국, 조선은 길상을 경기도 용인의 彌助峴에 안치하였다.⁸⁶⁾ 만일 선조 33년에 상경한 자들이 향화인이었다면 길상과 같이 한양에 오자마자 사역원을 찾았을 것이고, 후일 다른 지역에 안치되었을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선조 32년 6월에 함경도 관찰사 윤승훈이 변호에게 연회를 베풀어줄 때, 추장 등이 상경을 요청했고, 윤승훈은 명군이 회군한 뒤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선조 33년 3월에 함경도 관찰사 윤승훈이 보낸 사람들은 내조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윤승훈은 당시 명군이 회군하지 않았지만,⁸⁷⁾ 변호의 회유를 위해 이들의 내조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은 일부 변호에게 상경을 허락하였지만, 전처럼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변호가 상경하더라도 북평관과 같이 접대할 공간도 없었고, 궁궐도 전소되어 조선의 단약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은 전처럼 조회에서 의례를 진행할 수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때 변호의 내조는 예외적 사례에 해당하고, 조선은 이후 변호의 상경을 수용할 수 없었다.

조선이 취한 변호의 내조 수용 이외의 다른 방식은 조선을 공격한 변호를 공격하여 변호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었다.⁸⁸⁾ 선조 32년 7월부터 함경도 관찰사 윤승훈은 조선의 변경 침입과 변호를 공략한 노토에 대해 정토를 주장하였다. 이는 중신과 사헌부의 반대로 곧바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선조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고, 마침내 선조 33년 4월에 조선군은 노토를 공격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다른 변호들이 노토를 따르는 것을 사

86) 이선희, 2009, 「吉尙事件을 통해 본 17세기 초 向化胡人 관리 실태와 한계-『向化人謄錄』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7.

87) 명군은 그해 9월에 철군한다.(김경태, 2009, 「임진왜란 후, 明 주둔군 문제와 조선의 대응, 『동방학지』 147)

88) 그러나 조선의 정토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장정수, 2013, 앞의 논문, 175~182쪽)

전에 견제할 수 있었다.⁸⁹⁾

그러나 노토는 조선군에 敗退하여 惠山으로 이주한 후에도 번호를 공격하고, 국경을 노략질하였다. 심지어 선조 33년 7월에 甫乙下 침사 구황이 노토에게 공격받은 번호를 구원해주다가 전사하였다.⁹⁰⁾ 이처럼 노토는 전보다 격렬하게 조선과 번호를 공격하였다. 결과적으로 노토 정토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조선은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은 선조 37년경에 무산보에 開市를 설치하여 노토의 침입을 완화하고자 하였다.⁹¹⁾

결국, 조선이 번호의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은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으로 선회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전과 달리 번호가 상경할 때 도성까지 오도록 허락하지 않고, 함경도 관아에서 給食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번호 중 공이 현저한 자를 뽑아 전처럼 진상하고, 서서히 국력을 회복한 뒤 상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는 방침을 세웠다.⁹²⁾ 이때의 가장 큰 특징은 함흥에서 번호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선조가 34년 2월에 신임 함경도 관찰사 신잡을 인견할 때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5) 선조가 말하길, “...(중략)...이제 번호가 상경하지 못하므로 이 점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니, 보살펴 주는 뜻을 베풀도록 하라” 하니 신잡이 아뢰기를 “평소에는 번호가 상경하면 寡享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冠服을 주는 사례도 있었으나 임진년 이후 오랫동안 접대하는 일을 폐하였습니다. 이제 급히 우선 거행해야겠으므로 비변사가 지금 논의 중인데, 혹자는 길주 이하 館舍가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다 하고, 혹자는 함흥부에서 하려고 하므로, 신이 윤승훈에게 물었더니 ‘함흥은 大廳 40여 간을 조성한 다음에나 할 수 있으니 부득이 길주에서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⁹³⁾

89) 서병국, 1970, 앞의 책, 62~77쪽.

90) 『선조실록』 권127, 33년 7월 14일 을묘.

91) 서병국, 1970, 앞의 책, 78~97쪽. 서병국은 노토가 조선군에 정토를 당한 이후 누르하치와 손을 잡고, 조선을 공격한 것으로 보았다.

92) 『선조실록』 권132, 33년 12월 2일 신미.

위의 대화를 통해 당시 변호가 상경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잡의 발언처럼 평소에는 변호가 상경하면 연향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관복까지 주었으나 임진년 이후 오랫동안 접대하는 일을 폐하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⁹⁴⁾ 앞에서 본 것처럼 선조 33년의 내조도 단발성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변호의 내조를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명군도 철수한 상황에서 더는 변호의 내조를 거부할 명분도 없었다. 따라서 신잡은 오랫동안 변호를 접대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급히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비변사는 이들을 굳이 상경시킬 필요가 없이 함경도 자체에서 접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래서 비변사는 함흥의 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일단은 길주에서 변호를 접대하기로 한 것이다. 즉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변호의 상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양 대신 함경도의 관사에서 접대한다는 것이다.

위의 논의 내용은 실제로 잘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조 36년(1603) 7월에 예조가 아뢰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6) “올해 함흥부에서 접대하는 각 진의 야인에게 으레 내려주는 의복과 잡물은 임인년(선조 35)의 전례에 따라 (변호 중) 당상·당하를 합해 30인을 마련한 뒤에 기록하여 호조를 시켜 빨리 만들어서 오는 9월 안에 내려 보내게 하고, 진상하는 獬皮 값으로 주는 綿布는 靑綿布·紅綿布로 내려주며, 祿棒木 10疋은 호조와 병조의 목면으로 내려 보내라고 이미 啓下하셨습니다. 모자라는 면포와 따로 상줄 물건이 있으면 전례에 따라 본도를 시켜 편

93) 『선조실록』 권134, 34년 2월 24일 기사.

94) 실제로 조선 초기에 여진인이 내조하면 조선은 회사품으로 의복과 갓, 신, 면포 등을 주었다. 그리고 무단으로 상경하여 문제를 일으켰던 길상에 관한 기록이 실린 『向化人謄錄』에도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즉 길상은 선조 32년(1599)에 노토가 분탕할 때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잡물과 堂上에 加資된 書契와 당상관복 등을 모두 소실하였으니 전에 향화한 李所大 등의 예로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다.(『向化人謄錄』 no37-2) 이를 토대로 최소한 선조 35년 이전에도 조선은 여진인 내조자에게 서계와 조선의 관복을 내려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길상이 보관하고 있던 의복과 서계는 임진왜란 이전에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리한 대로 장만하여 준 뒤에 會計하여 減錄하라고 移文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⁹⁵⁾

(6)을 보면, 번호가 獺皮로 진상하면 조선은 그 값을 綿布로 계산해 주었다. 특히 선조 36년부터 조선은 함흥부에서 각 진의 번호를 접대해주고, 의복과 잡물을 주는 기준은 임인년(선조 35)의 전례에 따라 당상관과 당하관을 합하여 30명으로 정하였다.⁹⁶⁾ 즉 전년의 논의 내용이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었다. 조선은 내부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번호의 상경을 거부하는 대신 선조 34년부터 함흥부에서 의복과 잡물, 녹봉 등을 주었다. 조선은 국력을 회복한 뒤 상경을 허락하지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는 종래의 내조와 성격이 크게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조선 초 여진인 내조 수용 목적은 번호의 침입 방지와 함께 이들이 상경하여 조선의 의례를 준수함으로써 왕권을 체현하여, 조선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 일환으로 원래 조선은 번호를 冬至와 正朝에 맞추어 상경하게 하여 관련 의식에 참석시켜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에 편입하였다. 그런데 (6)과 같이 번호를 접대한 시점은 그 시기와 상관이 없었다.⁹⁷⁾ 이 역시 함흥에서의 접대가 기존의 내조 성격과 다름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도성이 파괴되고, 국가의 재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번호에게 기존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번호의 상경을 허용하지 않고, 단지 함흥에서 접대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약 200여 년간 유지해온 여진인 내조의 폐지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두만강 유역의 번호에 대한 안정을 꾀하였다. 조선은 그 방안으로 번호의 요청에 따라 일부에게

95) 『선조실록』 권164, 36년 7월 12일 병인.

96) 전란 이전에는 내조자를 풍년에 120명, 흉년에 90명으로 정한 것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숫자이다. 하지만 전란이 끝나자마자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특기할 점이다.

97) 박정민, 2012, 「조선 세조대의 여진인 내조와 여진인 귀속문제」 『전북사학』 41 ; 2013a, 「조선 건국기 여진인 내조와 조선의 외교구상」 『역사학연구』 49.

상경을 허락해 주었으나 여러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또한, 조선은 반발하는 노토 등을 응징하였으나 실패하며 두만강 유역 번호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이 작용하여 조선은 번호의 내조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즉 내조를 기반으로 건국 초부터 유지되던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가 종언을 고한 것이다. 그리고 약 200여 년간 지속된 조선과 번호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여진인의 내조와 조선의 대여진 정책, 여진인 내조의 성격 변화와 종언을 고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연산군대부터 감소하던 여진인 내조 기록은 선조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여진인이 북평관에서 무역을 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등의 사실을 통해 이들의 내조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조 16년에 발생한 니탕개의 난은 변장의 폭정 등과 같이 기존에 응축되었던 여진인의 불만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조선은 신립 등의 활약으로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후 정확하게 藩胡가 내조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정황상 임진왜란의 발발 전까지 이들이 조선에 내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양자의 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는 상황에서 육진의 관사를 분탕하는 번호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번호의 내조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약간의 물품이라도 나눠주고자 하였고, 공이 있는 추장에게 賞賜를 내렸다. 반면 조선을 공격하는 번호에 대해서는 응징하였다.

이때는 누르하치가 성장하는 시기로 조선 역시 건주위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두만강 유역의 변호에 대한 기록은 소략해진다. 한편, 누르하치는 茂山 지역의 변호인 老土를 이용하여 두만강 유역의 변호를 공략하였다. 조선은 변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임진왜란의 종식 후 조선은 일부의 변호에게 내조를 허락하였다. 하지만 한양이 전란으로 파괴된 상황에서 이들이 留宿 할 공간조차 없었고, 전과 같이 조회를 시행할 수조차 없었다. 게다가 노토 등은 여전히 조선의 변경과 변호를 공격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결국, 조선은 변호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해주는 방식으로 선화하였다. 그 방안으로 조선은 변호의 상경이 아닌 함흥의 관사에서 이들을 접대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 내조 성격과 다른 것으로 여진인 내조의 종언을 뜻한다. 이후 조선은 더 이상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임진년 이후부터 여진인의 상경을 영원히 폐하였다”⁹⁸⁾는 『春官志』의 내용과 같이 임진왜란이라는 변란으로 여진인의 내조가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건국 이래 여러 위기상황에도 여진인의 내조를 수용하였지만, 임진왜란을 계기로 종언을 고한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은 종래 여진인에게 가지고 있던 인식과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불과 약 30년 뒤 기존의 관계가 역전되어 조공을 받는 국가에서 조공하는 국가로 변화되는 단초로 작용하였다.

투고일 : 2014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5일

98) 『春官志』 卷3, 野人.

참고문헌

1. 기본사료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攷事撮要』, 『制勝方略』, 『建州紀程圖記』, 『向化人謄錄』, 『春官志』, 『北關志』, 『北路紀略』, 『東輿圖』, 『清太祖實錄』, 『滿州實錄』

2. 저서 및 논문

- 계승범, 2011, 「항통사 하세국과 조선의 선택 : 16~17세기 한 여진어 통역관의 삶과 죽음」 『만주연구』 11
- 김구진, 1995,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 김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해안
- 박정민, 2014, 『朝鮮時代 女真人 來朝 研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병국, 1970, 『宣祖時代 女直交涉史研究』, 敎文社
- 서병국, 1990, 「朝鮮前期 對女眞關係史」 『국사관논총』 14
- 송우혜, 2005, 「조선 선조조의 니탕개란 연구」 『역사비평』 72
- 劉小萌/이훈·이선애·김선민 역, 2013,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 윤호량, 2012, 「선조 16년(1583) ‘尼湯介의 난’과 조선의 대응」 『군사』 82
- 이선희, 2009, 「吉尙事件을 통해 본 17세기 초 向化胡人 관리 실태와 한계 - 『向化人謄錄』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37
- 이인영, 1954,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 정다함, 2008, 「朝鮮初期 野人과 對馬島에 대한 藩籬·藩屏 認識의 형성과 敬差官의 과건」 『동방학지』 141
- 정두희 외, 2007,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
-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 稻葉岩吉, 1913, 「清初の疆域」 『滿洲歴史地理』 下,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稻葉岩吉, 1933, 『光海君時代の滿鮮關係』, 大阪屋號書店
- 董嵩崙, 「明末清初圖們江內外瓦爾喀研究」 『民族研究』 2003年 1期
- 三田村泰助, 1965, 『清朝前史の研究』, 同朋舍
- 三田村泰助, 1961, 「朝鮮側史料より見た初の疆域」 『朝鮮學報』 21・22
- 閻崇年, 1983, 『努爾哈赤傳』, 北京出版社
- 袁閻琨 外, 2004, 『清代前史』 上·下, 瀋陽出版社
- 河內良弘, 1966, 「溫河衛考」 『朝鮮學報』 37・38
- 黃枝連, 1995, 『天朝禮治體系研究』 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Abstract ■

The End of the Imjinwaeran and Jurchen Mission to Hanyang

Park, Jung-min

This study have showed the Jurchen(女眞) mission to Hanyang(來朝), policy of the Joseon(朝鮮) about Jurchen, the process from personality change of the Jurchen mission to Hanyang to the end in a period before and after the Imjinwaeran(壬辰倭亂).

Joseon still to maintain the independent diplomatic order. But Imjinwaeran broked down such order. Joseon couldn't accept the mission to Hanyang from the Jurchen any more. Therefore Joseon changed the place of hospitality from Hanyang(漢陽) to Hamhung(咸興) in Hamkyungdo(咸鏡道). And Joseon lost the Jurchen of Duman River(豆滿江) Basin to Nurhaci(奴兒哈赤). As a result, Joseon lost the influence over the Jurchen.

Key words : Jurchen, King Seonjo, mission to Hanyang, Nurhaci, Bujantai, Duman River Basin